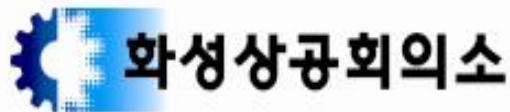


# 2023년 3/4분기 화성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

2023. 7.



[조사진행팀]

# I. 조사 개요

## 1. 조사 목적

○ 화성지역 제조업체의 2023년 2/4분기 경영실적과 2023년 3/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계획 및 유관기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.

## 2. 조사 기간

○ 2023. 5. 30.(화) ~ 6. 13.(화)

## 3. 조사 대상

○ 화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체 200개체 (응답업체 : 69개)

## 4. 조사 방법

○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

## 5. 조사 항목

○ 체감 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공급망 안정성 등의 실적 및 전망 BSI, 연초 목표대비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등 9가지 항목

## 6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작성방법

○ 응답 업체가 조사대상기간의 실적과 전망을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,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.
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(BSI)} = \frac{\text{호전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표시업체수}}{\text{총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$$\text{BSI} = \text{Business Survey Index}, \quad 0 \leq \text{BSI} \leq 200$$

※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임.

## II. 조사 결과

### 1. 전반적 경기 전망

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8, 기준치(100)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 2023년 3/4분기 경기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23년 2/4분기 '76' → 23년 3/4분기 '78' (전분기 대비 2p 증가)
  - 2023년 2/4분기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였지만, 여전히 기준치(100)에 미달한 수준으로 나타남
  -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경기 악화,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상황 등 대내·외 상황의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
- 2023년 2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'84' (전분기 대비 29p 증가)



- 응답기업, 경기 불변 및 악화 전망에 무게
  - 직전분기와 비슷하리라 전망한 업체가 49.3%, 경기 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36.2%인 가운데, 경기 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4.5%

## 2. 항목별 전망

모든 부문(매출·영업이익·설비투자·공급망 안정성·공장 가동)에서도 기준치(100)를 하회하여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예상

### ○ 매출(86), 영업이익(78)

- 고물가 및 환율 강세 등 대내·외 여건 악화로 내수 및 수출 부진하며 제조기업 생산 둔화 흐름 지속, 매출 등 경영실적 개선 불투명

### ○ 설비투자(96)

-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 설비투자 위축 전망 우세

### ○ 공급망 안정성(80), 사업장·공장 가동(87)

- 러-우크라 전쟁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로 글로벌 공급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,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지연 등 불확실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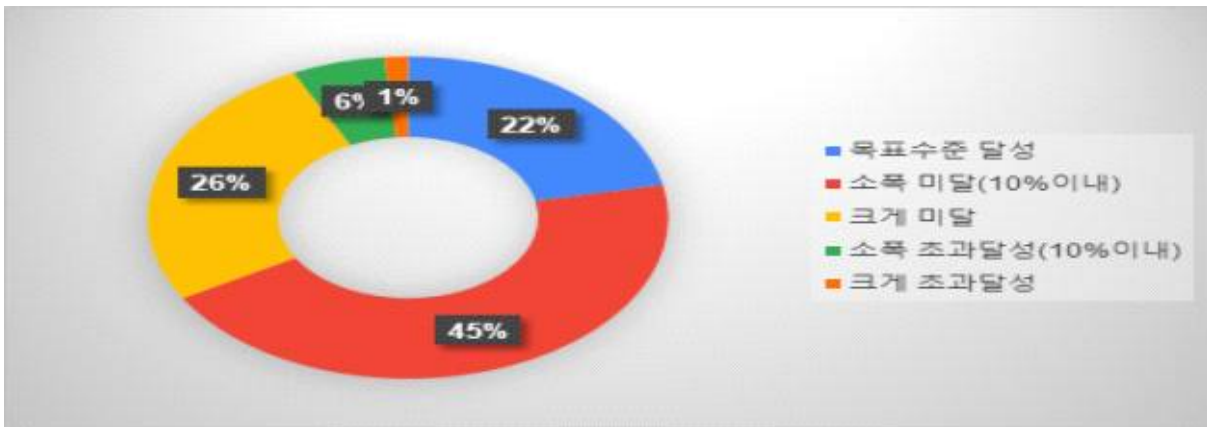
### <항목별 BSI 변화>

항 목	2023년 2/4분기 실적	2023년 3/4분기 전망
체감경기	84(+29)	78(+2)
매출액	96(+42)	86(+1)
영업이익	83(+33)	78(+8)
설비투자	93(+4)	96(+11)
공급망 안전성	83(+14)	80(-5)
사업장·공장가동여건	94(+27)	87(=)

### III. 기업경영 핵심변수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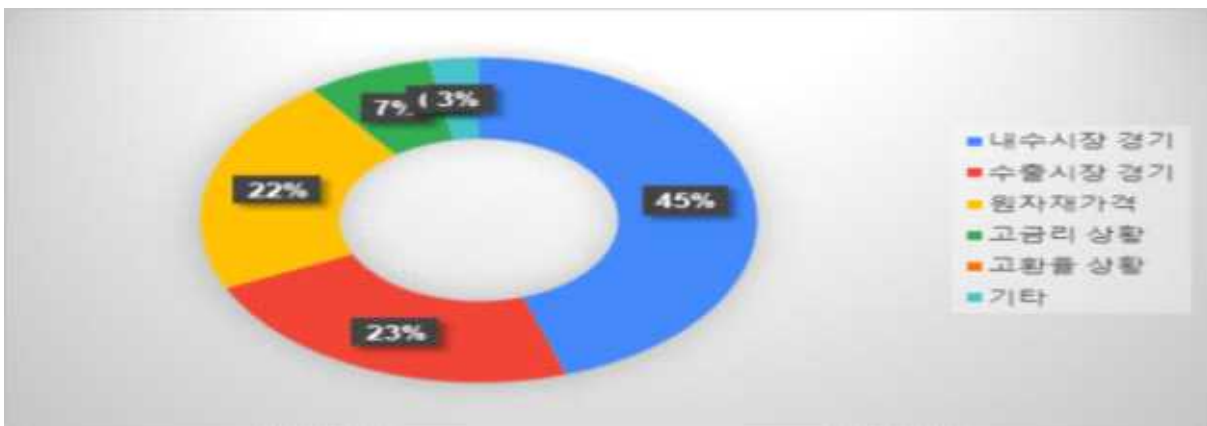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의 화성시 기업 2023년 영업이익 등 연초 목표 대비 소폭 미달
  - 연간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22%, 초과 달성한 기업도 일부 존재하나, 크게 미달한 기업이 26%로 대부분의 지역기업 계획 목표 수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1> 2023년 상반기 실적 달성 수준



- 해당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항목으로 지역기업은 내수 시장 경기(45%), 수출시장 경기(23%), 원자재가격(15%), 고금리 상황(5%) 순이라고 답변

<그림 2>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준 요인



- 하반기 실적에 가장 부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내부소비 둔화(중복응답 가능 항목으로 37개사 응답)
  - 이외 고물가·원자재가 지속, 수출부진 지속 및 고금리 상황 지속이 하반기 경영실적을 부정적으로 관망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힘
  - 해당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내 기업 하반기 경영실적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
  
- 수출 품목을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전·후를 비교했을 때,
  - 수출이 중단된 품목이 없는 기업이 80%로 코로나 사태 전·후로 동일 수준을 유지한 화성시 기업이 많았으나, 20%는 중단된 품목이 있다고 답했고, 수출 중단된 품목은 원자재·소재가, 수출이 중단된 국가는 중국이 많았음
  - 수출 중단(혹은 감소)한 이유로 ‘가격면에서 경쟁사에 밀림’에 해당하는 답변이 많았고, 수출시장 판매 부진 및 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 또한 화성시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3> 수출 중단 이유



- 반면에 수출이 증가 (혹은 새롭게 시작)한 기업은 19%로, 수출 품목은 부품(중간재)이, 새롭게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·아세안이 가장 많았고, 뒤이어 EU·일본, 남미 순으로 확인됨
- ‘기술·품질 면에서 우위’·‘수출시장 수요증가’가 수출 증가 (혹은 시작)한 이유로 가장 많았으며, 뒤따라 ‘새로운 수출제품 개발’·‘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’ 등 관내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4> 수출 증가 이유

